

한국 불탑 부조상의 기원 고찰*

박 경 식**

국문초록

한국 석탑, 특히 통일신라 석탑의 하층기단과 초층 탑신에 장엄된 다양한 조각상은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양식의 변천과 의미 규명 등에 집중된 탓에 한국 석탑에 부조된 장엄조식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불탑은 인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불탑의 장엄 역시 간다라와 인도의 불탑에서 시작되었다. 간다라의 다르마지카, 모라모라두, 주리안 유적에 건립된 불탑의 탑신에는 어김없이 불상이 부착되어 있고, 인도의 아잔타석굴 19굴 및 26굴 불탑 탑신 전체에 불상·보살상·비천상 등 다양한 장엄이 부조된 것에서 장엄조식의 시원이 간다라와 인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간다라와 인도에서 시작된 불탑의 장엄조식은 실크로드에 건립된 호탄의 라와 사원지 불탑, 카스의 모르불탑, 투르판의 교창고성 및 교하고성 내의 불탑에 불상의 실물 또는 조성되었던 흔적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실크로드를 따라 전파된 불탑의 장엄조식은 중국 운강석굴의 불탑에까지 나타나 끈끈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운강석굴 불탑과 북조시대에 조성된 소형 석탑에서는 전 층에 걸쳐 불상이 조각되어 불탑 장엄조식의 성행을 입증한다. 뿐만 아니라 唐代에 건립된 석탑에서 좀 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통일신라불탑에서와 같이 체계적이면서도 신앙과 결합된 데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간다라에서 시작된 불탑의 장엄은 중국의 불탑을 거쳐 마침내 만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비록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조형물에서 간다라의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논할 수 있는 유물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간다라 및 인도 불교도들의 아이디어는 실크로드와 중국을 통해 통일신라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간다라와 중국에서는 불상만이 부조되었던 장엄조식의 종류가 통일신라 때 10종으로 확대되었고, 장엄조식의 위치가 기단과 초층 탑신에 밀집되었다. 뿐만 아니라 금광명경이나 관불삼매해경과 같은 경전과 결합되면서 불탑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불교미술의 발상지인 간다라와 인도에서 시작된 불탑의 장엄조식은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 운강석굴에 계승되었고, 계속해서 고대 한국에 전승된 모티프는 “석탑의 나라”라는 별칭에 걸맞게 통일신라에서 만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간다라, 다르마라지카 불탑, 모라모라두 불탑, 주리안 불탑, 아잔타 석굴, 실크로드, 라와사원지, 모르불탑, 교창고성, 교하고성, 운강석굴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danhis@hanmail.net

I 목 차 I

I. 머리말	III. 중국 불탑의 장엄조식
II. 간다라 불탑의 장엄조식	V. 맺음말
IV. 한국 불탑에 부조된 장엄조식	

I. 머리말

불교조형물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조성된다. 때문에 유형을 막론하고 다양한 장엄조식을 베풀어 그의 세계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와 전파지인 중국 그리고 한국이 다르지 않은데, 이들 불교조형물 중에서 가장 많이 조성된 것은 단연 불탑이다. 그리고 불탑 표면에 가해지는 다양한 장엄조식은 그 이미지로써 화려한 부처님 세계를 표방한다. 따라서 일반 신도들에게 부처님 세계를 보여주는 시각매체라는 점에서, 사리가 봉안된 불탑은 석가모니의 무덤이라는 단순한 이미지를 뛰어넘어 불상과 함께 신앙의 대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불탑은 한국에서는 목탑과 석탑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으로 건립되었는데, 가장 많은 조형 예를 보이는 것은 석탑이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석탑과 전탑의 기단과 초층 탑신에 장엄된 다양한 조각상은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었고, 10종의 부조상이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석탑에 구현된 부조상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어, 장엄조식이 총체적으로 조명된 가운데,¹⁾ 사방불,²⁾ 문비,³⁾ 사천왕,⁴⁾ 인왕,⁵⁾ 팔부신중,⁶⁾ 주악상⁷⁾ 등 각각의 상에 대한 의의 및 전개과정과 이러한 상들을 불탑에 등장케 하는 소의경전의 역할이 상당 부분 구명되었다. 그런데 한국 석탑에서의 발전상과 등장배경 나아가 중국의 그것과의 비교 고찰에 집중된 탓에⁸⁾ 한국 석탑에 부조된 장엄조식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문

- 1) 張忠植, 「統一新羅石塔 浮彫像의 研究」, 『미술사학연구』 154·155合輯, 1982; 김정수, 「신라시대 목탑의 장엄조식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4: 1, 2005; 金煥大, 「한국석탑의 장엄 조식」, 『신라사학보』 6, 2006.
- 2) 文明大, 「新羅四方佛의 起源과 神印寺(南山塔谷 磨崖佛)의 四方佛」, 『한국사연구』 18, 1977; 조원영, 「신라 사방불의 형식과 조성 배경」, 『역사와 세계』 30, 2006.
- 3) 신용철, 「신라석탑 문비조각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37, 2014.
- 4) 문명대, 「韓國四天王像의 研究: 韓國塔浮彫像의 研究(2)」, 『佛教美術』 5, 1980; 曹元榮, 「新羅下代 四天王浮彫像의 造성과 그 배경」, 『역사와 세계』 19, 1995; 沈盈伸, 「통일신라시대 四天王像 연구」, 『미술사학연구』 216, 1997; 姜三慧, 「나말여초 僧塔 塔身 神將像 연구」, 『미술사학연구』 252, 2006.
- 5) 문명대, 「韓國塔浮彫(彫刻)像의 研究(1): 新羅仁王像(金剛力士像)考」, 『佛教美術』 4, 1979; 임영애, 「신라 불탑 탑신(塔身) 부조상의 추이: 금강역사상에서 사천왕상으로」, 『先史와 古代』 35, 2011.
- 6) 조원영, 「신라 하대 팔부신중상 연구」, 『역사와 경계』 39, 2000; 田正中, 「新羅石塔八部衆像의 樣式과 變遷」, 『문화사학』 16, 2001; 申龍澈, 「統一新羅 八部衆像의 考察」,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4, 2003.
- 7) 황미연, 「통일신라시대 주악상에 관한 고찰」, 『낭만음악』, 낭만음악사, 1996.
- 8) 미술사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양식사에 관한 연구일 것이다. 새롭게 발생한 조형은 시대를 계승하며 지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해 다양한 발전상을 이룩하기 때문에 양식에 대한 분석은 바로 미술사 연구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미술사 연구자들은 시대와 유형, 그리고 그것이 지닌 불교사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경전과 연계시키는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동

제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문화이든 원형 탐구와 기원 규명은 양식 발전사 검토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더욱이 불탑은 인도와 간다라 불교문화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래된 것이라는 사실에 입각할 때 한국 불탑에 부조된 다양한 장엄조식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간다라 불교문화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주로 큰 틀에서 불상과 불탑 위주로 진행되는 가운데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⁹⁾

필자는 간다라와 인도지역의 여러 불적, 특히 간다라의 중심지인 탁실라 일대를 직접 답사하며, 다르마라지카와 유리안 등 여러 유적의 불탑에 부조된 조각상을 실견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불탑 부조상의 연원이 바로 이곳에 닿아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런데 이같은 發想에는 한국의 불교미술품 가운데서 간다라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는 조형물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불교조형물의 기원을 이 지역으로 직접 소급할 수 없다는 난관 위에서 발전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비록 한국 불탑에 구현된 장엄조식의 양식을 인도·간다라의 그것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이 전파되는 길목에 있는 불탑과 그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아이디어 내지는 모티프의 전파가 각국의 불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규명과 더불어 새로운 양식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¹⁰⁾ 한국 불교문화의 원류를 논할 때 기존에는 중국과의 비교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그간 이룩된 간다라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을 연결하는 불교문화의 노정을 생각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여겨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도 및 간다라와 중국 불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불탑에 등장하는 다양한 부조상의 연원이 간다라와 인도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¹¹⁾

첫째, 간다라의 다르마라지카와 유리안유적 등의 불탑에서 확인되는 조각상과 아틀라스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간다라에서 확립된 부조상의 전통이 실크로드를 거쳐 운강석굴에 부조된 불탑에 영향을 미쳤고, 이어 唐代에 건립된 석탑에서 확인됨을 서술하고, 셋째, 통일신라시대 불탑에 등장하는 다양한 부조상은 간다라와 인도의 불탑에서 조식된 이래 중국을 경유해 신라에 이르는 긴 여정의 산물임과 동시에 이 지역과는 차별화

원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불탑 양식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유형들과 비교고찰을 시도한다. 그렇지만, 유념해야 점은 비록 불교미술작품의 절대다수가 중국에서 발전되고 만개했다 하여도, 그것의 발생지는 간다라를 포함한 인도라는 사실이다.

- 9) 간다라 불상에 대한 대표적인 논고는 임영애, 「무장형 사천왕상의 연원 再考: 간다라 및 서역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11, 1998; _____, 「간다라(Gandharh)의 金剛力士」, 『中央 아시아 研究』 9, 2004; _____, 「인도와 간다라의 執金剛神」, 『강좌미술사』 29, 2007; 李柱亨, 「간다라 불상의 몇 가지 양식적 유형」, 『미술사학연구』 219, 1998; 문명대, 「간다라(Gandharh) 불상론(佛像論)」, 『강좌미술사』 21, 2003; 유근자, 「간다라 梵天勤請 佛傳 圖像의 地域別 比較研究」, 『강좌미술사』 25, 2005; 양은경, 「불상과 중국 불상의 관계 비교: 五胡十六國時代 불상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25, 2005; 고정은, 「간다라와 마투라의 불전부조도 교류관계 연구」, 『강좌미술사』 25, 2005; 金籽優, 「미술사의 작가와 유파: 조각: 탁실라 달라미지가 사원지 간다라 스투코 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 2006; 문무왕, 「신라 불교문화 원형 연구: 실크로드와 경주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43, 2014 등이 있다. 불탑에 대한 대표적인 논고는 손신영, 「간다라 방형기단 불탑의 一考察」, 『강좌미술사』 25, 2005 및 천득염·김준오, 「인도 쿠샨시대의 스투파 형식」, 『건축역사연구』 21: 6, 2012 등이 있다.
- 10) 아이디어의 전래가 새로운 양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견해는 김원룡 선생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 김원룡, 「唐朝의 舍利塔」, 『考古美術』 4: 4, 1963.
- 11) 본고에서는 간다라와 인도지역의 불탑에 부조된 장엄조식의 현황을 서술하는데 국한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불탑과 불상이 지닌 양식에 대한 논의는 별고를 기약한다.

된 한국불탑의 특수성이 발현되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Ⅱ. 간다라 불탑의 장엄조식

간다라 지역에는 평면이 원형과 방형을 이루는 불탑들이 건립되어 있다, 이들 불탑들은 모두 석재를 주 재료로 건립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부조상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이 중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불탑은 기단에 장엄조식이 부조된 다르마라지카스투파, 유리안과 모라모라두 사원의 불탑이다. 이들 불탑에는 기단 부에 모두 불상과 아틀라스라는 공통점인 장엄이 부조되어 있다. 이들 불탑에서 파악되는 부조상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다르마라지카 사원의 불탑

(1) 메인탑¹²⁾(사진 1~2)

다르마라지카 사원의 중심에는 지름 45m, 높이 13m 규모인 원형 평면의 대탑이 위치한다. 이 석탑은 아쇼카왕대에 건립된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A.D. 1~2세기경에 진행된 대규모 공사로 인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불탑의 주변으로는 圓形을 이루며 승방이 배치되어 탑과 이들 승방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답도가 형성되어 있다. 더불어 불탑의 주변에는 배탑으로 조성된 소형 원탑이 건립되어 있다. 불탑의 네 곳에는 기단을 오르는 계단이 마련되어 있고, 기단의 상면에는 탑신을 일주할 수 있는 답도가 조성되어 있다.¹³⁾

불탑의 탑신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계단석 상면에 조성된 테라스의 주변에 구비된 감실이다. 현재 동쪽면에 그 原形이 남아있는데, 테라스를 중심으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3개소가 현존하고 있다. 왼쪽의 형상이 圓形일 것으로 추정된다. 감실은 사다리꼴과 2단 아치형¹⁴⁾의 형태로 기둥을 중심으로 장방형의 구획을 구성한 후 각각 1개소씩 교대로 개설되었다. 이같은 감실의 내부에는 아무 장엄도 없지만, 본래는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을 것이다. 또한 감실과 테라스의 구조는 탑신의 벽면에 잇대어 조성되어 있어 창건기의 것인지

12) 김영애, 「달마라지카 사원구조와 불상조각」, 『강좌미술사』 23, 2004; 金籽優, 「미술사의 작가와 유파: 조각: 탁실라 달라미지카 사원지 간다라 스투코 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 2006; 손신영, 「간다라 방형기단 불탑의 一考察」, 『강좌미술사』 25, 2005.

13) 이같은 답도의 구조는 산지 대탑에서도 확인된다. 불탑의 네 곳에 개설된 문 안쪽으로 개설된 원형의 답도 그리고 기단 상면에 개설된 동일한 구조를 볼 때 양 불탑은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아쇼카왕대에 건립되었다는 시대적인 상황이 양 불탑에서 공통적인 요인이 검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이 양식에 대해 “三曲아치”라는 견해가 있다(손신영, 「간다라 방형기단 불탑의 一考察」, 『강좌미술사』 25, 2005, 120쪽).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치형을 이루고 있다. 정확히 반원형을 이루는 상단부, 중단의 여백 하면에 좌·우로 벌어지는 하단부를 볼 때 2단 아치형으로 보고자 한다. 더불어 간다라 지역의 불탑에 등장하는 감실은 모두 이 같은 양식을 보이고 있다.

아니면 중수시의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탑신이 semi-ashlar 기법으로 축조된 점으로 보아 늦어도 5세기에는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⁵⁾ 이를 통해 불탑에서 감실을 조성하고 불상을 봉안하는 법식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 1〉 다르마지카 유적 메인탑 전경



〈사진 2〉 메인탑 탑신부 감실

(2) 봉헌탑

1) 방형불탑(사진 3~4)

다르마라지타 사원지에는 앞서 대탑과 더불어 주변에는 많은 봉헌탑이 조성되어있다. 이들은 불탑을 중심으로 건립된 소형의 圓塔과 주변에 산재한 방형 기단을 구비한 불탑으로 구분된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N4로 명명된 방형불탑이다. 이 탑의 기단 네 면의 중앙에는 앞서 언급한 2단 아치형의 감실이 각각 1개소씩



〈사진 3〉 방형 봉헌탑 전경



〈사진 4〉 남쪽면 감실 및 잔존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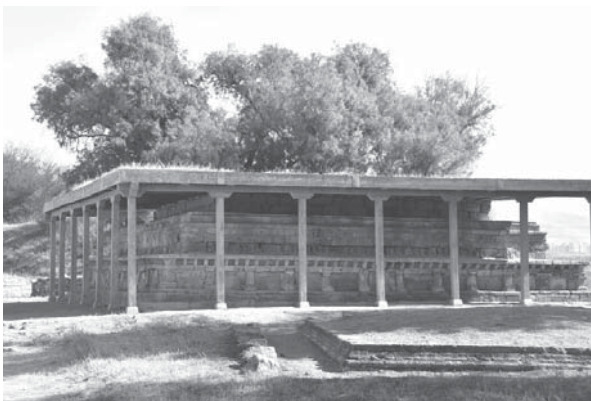
15) semi-ashlar 조성기법을 5세기로 보는 이유는 탁실라박물관 전시되어 있는 이 지역 석조물에 구현된 석재쌓기 기법의 조성 연대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

개설되어 있다. 이 역시 내부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지만, 본래는 불상이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면면을 볼 때 불탑의 기단에 불상을 장엄하는 전통은 간다라 불탑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J1스투파(사진 5~6)

앞서 언급한 대탑의 남쪽 면에 위치한 장방형의 불탑은 J1스투파로 명명되어 있다. 이 탑 역시 방형의 기단을 구비하고 있는데, 기단의 중앙에는 아치형의 감실이 조성되어 있다. 감실의 내부에는 파손된 불상이 잔존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두 탑의 감실 안에 불상이 봉안되었을 것임을 암시한다. 탑신 하면에는 아틀라스가 감입되어 있다. 이들은 기단 감실 상면에 극히 좁은 공간에 떠를 이루면서 빼곡하게 조성되어 있다. 인물상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낮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조성된 협소한 공간 내부에 조각되었는데, 머리와 양 어깨의 상면을 편평하게 만들어 상면을 받치거나 양 손을 이용해 받치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상단의 한 면에 감입된 별석으로 조성된 석주들은 사자와 코끼리로 추정된다. 이같은 정황을 모두 정리해 보면 이 불탑에서 확인되는 아틀라스는 인물상과 코끼리·사자로 대표되는 동물상이 상면의 부재를 받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J1 불탑에 등장하는 이러한 아틀라스는 그리스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에레크테이온 신전의 女人柱像을 기원으로 한다는 견해가 발표된 바 있다.¹⁶⁾ 이를 보면 J1 불탑에서 등장하는 아틀라스의 형상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 이 지역 사람들에 의해 적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다르마라지카 불탑에서 파악되는 장엄조식을 살펴보았는데, 탑신부에는 감실을 구비하여 불상을 조각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단 면석 중앙에 불상이 1구씩 봉안된 흔적에서 불탑 표면에 불상이 장엄조식으로 등장한 점을 찾아볼 수 있었고, J1 스투파에서처럼 상면을 받치는 아틀라스도 파악된다.



〈사진 5〉 J1 스투파 전경



〈사진 6〉 J1 스투파 기단부 감실내 불상

16) 에렉테이온 신전 포치의 여섯 女像柱와 같이 사람이 상부구조를 받치는 형식은 그리스 건축에서 시작되었지만, 불교적 맥락에서 하층에서 상층의 불상을 받드는 아틀라스의 기원은 간다라 불탑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해주, 「북제 향당산석굴 불상대좌 연구(1)」, 『동양학』 60, 2015, 19~24쪽); _____, 「국립중앙박물관소장 금동반가사유상 대좌 人像柱 도상의 원류와 상징」, 『신라문화』 47, 2016, 182쪽).

2. 주리안 사원지의 불탑

주리안 사원지에는 메인탑과 그 주변에 23기의 봉헌탑이 건립되어 있다. 메인탑의 동벽, 남벽과 북벽의 기단 하면에는 스투코로 조성한 불상이 조성되어 있고, 봉헌탑의 네 벽에도 감실과 불상 그리고 아틀라스가 조성돼 불탑 부조상의 기원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메인탑과 봉헌탑에 조성된 부조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메인탑(사진 7~8)

장방형의 기단을 구비한 메인불탑은 방형의 초석 상면에 주좌를 놓은 후 기둥을 표현하고 있는데, 불상은 기둥과 기둥사이의 면석에 스투코로 조성되어 있다. 각 면에 조식된 불상 대부분이 좌상인데 이들은 탑신 하단에 높직한 단을 조성하고 탑신 면석에 등이 부착된 부조상이다. 뿐만 아니라 동면, 남벽, 북면에서 모두 같은 양상을 띠고 있어 탑신부를 장엄하기 위한 배치로 판단된다. 더불어 불탑을 semi-ashlar기법으로 축조한 후 사면의 표면을 스투코로 바른 것이 확인되고 있어 이 불상들은 석탑이 건립된 이후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불상의 양식으로 볼 때 불탑과 동시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쪽 면에는 8구, 남쪽 면에는 4구, 북쪽 면에는 3구의 불상이 조성되어 있다.



〈사진 7〉 주리안사원지 메인탑 동벽 불상군 〈사진 8〉 주리안 사원지 메인탑 동벽불상군 불상

(2) 봉헌탑(사진 9~14)

메인스투파의 외곽에는 동·남·북 삼면의 외곽에는 모두 23기의 봉헌탑이 조성되어 있다. 이들의 평면은 모두 방형인데, 상면으로 갈수록 조금씩 면적이 좁아지는 양상이다. 전체적으로 층수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지만, 모두 낮은 기단을 구비하고 있다. 이들 중 동쪽 면에 건립되어 있는 3기의 봉헌탑의 경우, 네 면 모두에 기둥을 배치하고, 사다리꼴과 2중 아치형의 감실을 조성하여 불상을 봉안했다. 뿐만 아니라 하단과 중단의 여백에는 인물과 동물이 혼재된 아틀라스상이 조성되어 있다. 이같은 정황을 보면 3기의 불탑 사면에 불상과 아틀라스가 조식되었고, 대체로 기단-아틀라스-불상-아틀라스-불상의 순으로 부조되는 공통점이 보인다. 이같은 3기의 탑 외에 A1~A20으로 명명된 20기의 봉헌탑 역시 낮은 기단 위에 방형의 탑신을 올린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들 봉헌탑은 앞서 언급한 3기의 봉헌탑과 같은 형식, 메인탑과 같이 탑신 네 면에 고부조의 스투코 불상을 조각한 형식으로 분류된다.



〈사진 9〉 줄리안 사원 불탑 1 전경



〈사진 10〉 불탑 1 감실내 불상



〈사진 11〉 줄리안 유적 불탑 2전경



〈사진 12〉 불탑 2 탑신부 감실내 불상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줄리안 사원지의 메인불탑과 봉헌탑에는 모두 탑신 표면에 불상이 부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semi-ashlar기법으로 불탑을 조성하고 각 면에 회반죽을 발라 탑신을 보호하고 있다. 불상들은 스투코를 바른 벽에 부착되는 방식으로 고정되었고 모두 좌상이다. 줄리안 유적이 A.D. 2C 후반, 혹은 A.D. 3C에 창건되어 A.D. 5C 경 화재로 폐허가 된 사지인 점을 고려할 때¹⁷⁾ 불탑과 부조상

은 늦어도 5세기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주리안사원지Ⅱ에 대한 발굴조사가 동국대학교 학술조사단에 의해 2005년 1월 2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된 바 있는데, 조사 결과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고, 봉헌탑에는 불상이 부조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이 유적은 A.D. 1~2세기 내지 3세기의 초기 쿠산시대에 조성된 이른 시기의 사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¹⁸⁾



〈사진 13〉 불탑 3 부조상 전경



〈사진 14〉 주리안 사원 A15 봉헌탑

3. 모라모라두유적

모라모라두 유적에는 중심 불탑과 이의 전면에 건립된 봉헌탑 1기가 현존하고 있다. 중심 불탑은 방형의 기단 위에 원형의 탑신이 올라갔다. 기단과 탑신에는 많은 수의 기둥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성되어 마치 신전의 열주를 연상케 한다. 메인 불탑과 안내문에 VOTIVE STUPA라고 명명된 봉헌탑에는 많은 수의 불상이 조성되어 있다. 각각의 형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메인탑(사진 15~19)

메인 불탑에는 기단을 돌아가며 많은 수의 스투코 불상이 조성되어 있다. 남쪽 면에는 7구의 불상이 배치되었는데, 불상은 모두 스투코상인 좌상이다. 이들은 소형으로 제작되어 높게 조성된 기단에 비해 왜소한 느낌을 준다. 북쪽 면에는 8구의 불상이 현존하고 있는데, 좌상과 입상이 공존한다. 이같은 정황을 보면 기단부의 장엄조식은 좌상과 입상이 병존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탑신의 서쪽 면에는 세구의 불상이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부의 불상은 비교적 완형을 유지하고 있다. 통견법의를 입고 선정인을 결한 자세인데, 장방형의 대좌 상면에 봉안되었다. 머리가 결실되어 정확한 형상을 알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라모라두 메인 불탑에서는 기단부의 동면과 남면 그리고 원형 탑신의 동면

17) 손신영, 2005, 앞의 논문, 각주 33 재인용.

18) 문명대, 「JaulianⅡ 寺院址 發掘 報告」, 『강좌미술사』 25, 2005, 209쪽.

에 불상을 봉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단과 탑신의 표면에 강회를 바른 후 이에 덧붙여 불상을 조성했음도 확인된다.



〈사진 15〉 모라모라두 유적 메인불탑



〈사진 16〉 메인불탑 탑신부 부조상



〈사진 17〉 모라모라두유적
메인탑 남쪽 부조상



〈사진 18〉 메인탑 서쪽부조상



〈사진 19〉 메인탑 북쪽 부조상

(2) 봉헌탑(사진 20)

봉헌탑은 메인불탑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바, 장엄은 한쪽 면에서만 확인된다. 기단에는 4주의 기둥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조성된 3개의 공간 각각 스키투 소재의 불상을 조성했다. 중앙면에는 5존불, 좌우에는 삼존불의 형식을 배치하고 있다. 나머지 면에서는 불상의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파손된 흔적 등으로 볼 때, 본래는 같은 형식의 불상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탑에 대해서는 봉헌탑의 기단으로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연구된 바 있는데,¹⁹⁾ 필자는 전자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본다.²⁰⁾



〈사진 20〉 봉헌탑 장엄조식

(3) 승원지 9굴 내 원형불탑(사진 21~22)

승원지의 9실 내에 봉안된 원형불탑은 기단으로부터 탑신 그리고 상륜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圓形의 평면을 이루며 스투코로 조성되었다. 전체 5단으로 구성된 기단의 가장 하면에는 코끼리와 사자로 추정되는 동물로 구획을 나눈 후 그 사이에 아틀라스를 배치하였다. 대부분 파손되어 원형을 알 수 없지만, 그 흔적으로 보아 앞서 언급한 다르마라지카 J1 불탑과 유리안 사원지의 배탑에서와 같이 다양한 인물상이 위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단에는 사다리꼴과 2중 아치형의 감실을 조성한 후 내부에 선정인을 결한 좌상을 놓았다. 더불어 3단에서도 소형의 기둥으로 구획을 구분한 후 내부에 각각 선정인을 결한 좌상을 두었다. 이 같은 면면을 보아 이 불탑은 가장 하면에서 코끼리와 사자 그리고 인물상의 아틀라스가 상면을 떠받치고, 상단의 각 면에는 불상을 조성해 기단 전체를 장엄했음이 확인된다. 모라모라두 사원지의 창건 연대는 대략 기원후 2세기 경, 주탑의 조성 연대는 3~4세기 경으로 추정된다.²¹⁾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간다라 지역의 불탑 장엄조식은 하층에 아틀라스를 배치하고 상면에 불상이 중심을 이루는 경우와 기단부의 각 면에 불상을 배치되는 두 가지 형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성된 불상은 스투코 소재이며, 기단의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이 좌상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더불어 부조된 불상은 기단과 탑신의 외벽에 칠해진 석회벽²²⁾에 잇대어 조성한 경우와 감실을 조성하고 그 안에 부조한 두 가지의 형식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로 메인탑에 후자는 봉헌탑에서 확인된다. 더불어 전자의 경우 불탑에 가해진 부조상이 기단과 탑신의 규모에 비해 소형으로 조성된 점으로 볼 때 불탑의 장엄으로서의 성격²³⁾으로 이해된다.

19) 손신영, 앞의 논문, 128~1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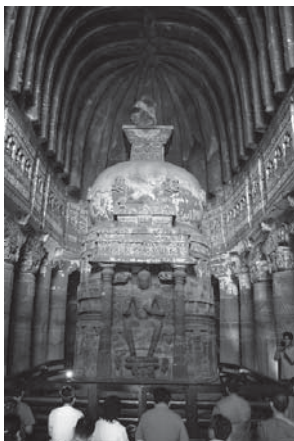
20) 간다라의 불탑 주변에는 대부분이 봉헌탑이 조성되어 있다. 이들은 탑신의 네 벽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건립되어 있다. 그러나 모라모라두에서는 메인불탑 주변에 1기만의 봉헌탑만 조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그 성격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1기만 건립되었다 하더라도 메인탑과 인접해 있는 점으로 보아 봉헌탑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21) 손신영, 앞의 글, 128쪽.

22) 안병찬, 「간다라 건축물의 회벽 마감기법에 관한 試考」, 『강좌미술사』 24, 2005, 253~265쪽.



〈사진 21〉 사원터 9굴 불탑

〈사진 22〉 9굴 불탑
기단부 장엄조식〈사진 23〉 아잔타
석굴 19굴 불탑〈사진 24〉 19굴 불탑
탑신부에 부조된 불상〈사진 25〉 아잔타석굴
26굴 불탑〈사진 26〉 26굴 불탑
기단부 정면 불상〈사진 27〉 26굴 불탑
기단부 부조상1〈사진 28〉 26굴 불탑
기단부 부조상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불탑 표면에 불상이 장엄으로 부조되는 양식은 간다라 지역에서 발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이 인도 중부 지방에서도 나타난다. 5세기에 축조된 인도 아잔타 석굴 19굴과 26굴의 불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²⁴⁾ 19굴의 경우는 석주형으로 조성된 불탑의 전면에 감실을 조성하고 내부에 입상을 배치했다. 상륜부는 인물형 아틀라스가 산개를 받치고 있다(사진 23). 26굴에서는 탑의 기단부로부터 탑신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불상을 비롯한 장엄이 조식되었다. 먼저 기단부는 상·하 2단으로 구획했는데, 전면 양측에 기둥을 세우고 입상을 부조했다. 상의 좌·우에는 코끼리 상면에 사자를 부조했으

23) 천득염·김준오, 2012, 앞의 글.

24) SUSAN L. HUNTINGTON, *THE ART OF ANCIENT INDIA*, WEATHERHILL New York·Tokyo, 1993, pp.249~251.

며, 상단에는 비천상을 양각했다. 이를 기점으로 원형으로 조성된 기단부를 돌아가며 상·하단에 불상과 보살상을 장엄했다. 기단의 전면 상단부는 상·하 2단으로 구획한 후 하단에는 불·보살상을, 상단에는 인물형 아틀라스를 빈틈없이 배치하고 있다. 이처럼 전면부의 조식을 중심으로 원형의 평면을 따라 3단으로 구획한 후 하단과 중단에는 보주형의 감실을, 상단에는 기둥을 세워 구획하여 그 내부에 불·보살 입상을 양각했다. 원구형 탑신부에는 비천상을 새겼다(사진 24~28). 즉, 26굴의 불탑에서는 불상과 보살상 그리고 아틀라스가 장엄조식으로 채택됨으로써 간다라 불탑에 등장한 장엄조식이 모두 구현되었다. 뿐만 아니라 간다라의 불탑과는 달리 기단 및 탑신과 일체형으로 조성된 점은 간다라 지역의 봉헌탑에서와 같은 양식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간다라 지역과 인도중부지역의 불탑에서 등장하는 장엄조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지역의 불탑 건립 시기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1>로 집약된다. 이 표를 보면 간다라 지역에서 A.D. 1~4세기 사이에 시작된 불탑의 장엄조식은 5세기에 건립된 아잔타 석굴의 불탑에 이르러 완성을 이룸을 알 수 있다.

<표 1> 간다라·인도 불탑 장엄조식의 조성시기

불탑명	조성시기
다르마라지카불탑	A.D. 1~2세기
다르마라지카 방형탑	A.D. 1~2세기
다르마라지카 J1불탑	A.D. 1~2세기
주리안 사원지 불탑과 배탑	A.D. 2~3세기
모라모라두 불탑과 배탑	A.D. 3~4세기
아잔타석굴 19굴	A.D. 5세기
아잔타석굴 26굴	A.D. 5세기

Ⅲ. 중국 불탑의 장엄조식

간다라와 인도의 불탑 부조상은 중국으로 전래되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된다. 본 장에서는 중국 불탑의 장엄조식이 실크로드상의 천산남로를 통해 전파되어 운강석굴에 정착되고, 唐代에 건립된 석탑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다루고자 한다.

1. 실크로드 상에 건립된 불탑의 부조상

간다라 지역에서 시작된 불탑과 이에 부조된 장엄조식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파되었다. 실크로드

상에는 많은 불교유적이 현존하고 있는 바, 이중 불탑이 건립되어 있는 유적과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로 집약된다.²⁵⁾

〈표 2〉 실크로드 상에 건립된 불탑 현황

교통로	도시	유적	비고
天山南路	客什	莫尔佛寺遗址	불탑 2기 현존
	阿克苏 柯坪縣	克孜勒塔格佛寺 佛塔	불탑 1기 현존
	庫車	蘇巴什遺蹟	불탑 3기 현존
	庫爾勒	七个星佛寺遗址	불탑 1기 현존
	吐魯番	高昌古城	大佛寺 佛塔
		交河古城	塔林, 中央大塔, 大佛寺佛塔, 東北小寺佛塔, 小塔
		臺藏塔	
	哈密	白楊沟佛寺遗址	寺域內 佛塔 2기
오아시스路	和田	熱瓦克佛寺遗址	불탑 1기 현존
	民丰	泥雅遺蹟	불탑 1기 현존
		安迪尔遺蹟	불탑 1기 현존
	若羌	米蘭遺蹟	불탑 2기 현존
		樓蘭遺蹟	불탑 1기 현존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불탑이 현존하고 있는 유적은 모두 13개소에 달하고 있는바, 이중 장엄이 가해진 불탑은 客什 모르불탑 중 東塔·和田 熱瓦克佛寺遗址의 불탑·투루판 고창고성 내 대불사 불탑·교하고성 내 대불사 불탑과 소불탑·동북소사 불탑 등이다. 여기에는 모두 기단으로부터 탑신에 감실을 조성하고 불상을 봉안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천산남로의 가장 서쪽에 자리한 客什에 있는 莫尔佛寺遗址에는 현재 2기의 불탑만이 현존한다. 이중 동탑은 완벽한 간다라 불탑 양식인데, 3단으로 구축된 방형 기단의 상면에 원구형의 탑신을 올렸다(사진 27~28). 이들 불탑이 간다라 지역의 불탑과 다른 점은 석재가 아니라 진흙벽돌로 기단과 탑신을 구축하고, 고운 진흙으로 탑 전체를 발랐다는 점이다. 불탑의 후면에는 지면으로부터 높직한 1단의 턱을 두고 상면에 예불행위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했다. 기단의 벽면은 수직인데, 좌·우에 벽체가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감실의 형태를 띤

25) 이 표는 필자가 실제 답사를 진행했던 유적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이중 泥雅遺蹟, 安迪尔遺蹟, 樓蘭遺蹟의 불탑은 도록에 제시된 도판을 이용했음을 밝힌다. 더불어 실크로드 상에는 “대략동계로 타림분지 남부라인 화전과 누란사이에 총 17처 대형불탑이 있다. 라와크불 이외에 다른 불탑은 모두 고대도시 안에 있어 지면 불사와 함께 세웠다. 북부라인 카스와 하미사이에는 총 210처 불탑이 있다.”라 보고되어 있다. 艾斯卡尔 외, 「丝绸之路新疆段佛塔特征研究」, 『學術論文全专刊』, 2015, 77쪽.

다.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기단 상면에 오르는 계단이 설치됐다는 점에서, 본래는 대형 입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불탑은 漢 말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⁶⁾



〈사진 27〉 喀什 莫尔佛寺遗址 東塔



〈사진 28〉 莫尔佛寺遗址 東塔 감실부

和田 熱瓦克佛寺遗址에 건립되어 있는 불탑은 (사진 29) 斗出形 기단을 구비하고 있는데, 사방에는 탑신을 오를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상면에는 복발형의 탑신이 남아있어 간다라 지역의 불탑과 동일한 양식임을 알 수 있다. 불탑의 외곽에는 담장이 돌아가고, 네 벽에는 1,000여구의 불상이 부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이 불탑은 기단과 탑신에는 장엄조식이 직접 가해지지 않는 탓에 본 논문의 주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부조된 불상이 모두 간다라 양식이고,²⁸⁾ 담장의 하단부에 놓여 탑을 중심으로 불상이 배치된 간다라 닥트이바히 사원의 구조²⁹⁾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불탑에서 출토된 오수전은 회랑의 조각상과 벽화의 예술적 성격과 더불어 서기 3~4세기 작으로 보인다.³⁰⁾



〈사진 29〉 和田 熱瓦克佛寺遗址 불탑

천산남로와 오아시스로의 첫 번째 도시인 카스와 호탄의 유적에서 불탑 부조상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³¹⁾ 하지만, 투루판의 교하고성과 고창고성의 사원지에서 명확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고창고성에는 크

26) 張馭實, 『中國佛塔史』, 科學出版社, 2006, 7쪽.

27) 임영애, 『서역불교조각사』, 일지사, 1996, 111쪽.

28) 임영애, 위의 책, 1996, 112~125쪽.

29) 박도화, 「닥트이바히 사원지 구조와 불상조각」, 『강좌미술사』 23, 2004. 이 사원지에는 중앙에 건립된 방형 기단의 불탑을 중심으로 사방을 돌아가며 불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에는 모두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다.

30) 陈晓露, 「西域回字形佛寺源流考」, 『考古』 11期, 2010.

고 작은 불교유적지가 산재해 있는데, 이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大佛寺 佛塔이다. 성내 서남쪽에 위치하는 대불사 사역 안에 불탑이 건립되어 있다(사진 30~31). 높직한 방형의 기단 상면에 같은 형식의 탑신이 조성되어 있다. 전면에는 아치형의 감실이, 하면에는 불상의 대좌로 추정되는 장방형의 구조가 있다. 이를 통해 불탑의 전면에 거대한 불입상이 조성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불탑의 좌·우와 후면의 하단에는 3구의 감실이, 이의 상단에는 각 면 7구씩의 감실이 3단으로 조성되어 있다. 각각의 감실에는 불상이 남아있지 않지만, 채색흔적을 통해 본래는 불상이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이 불탑은 전면에는 대형불상이, 나머지 면에는 24구씩 모두 73구의 불상이 안치되었을 것임이 파악된다. 이처럼 전면에는 대형불상이, 나머지 면에는 다양한 불상이 봉안되는 경우는 인도 아잔타 석굴 26굴에서 본 바와 같고, 기단의 하면에 불상을 봉안하는 수법은 간다라 지역의 여러 불탑과 궤를 같이한다. 더불어 불탑의 외곽에 담장을 쌓아 자연스레 탑을 일주할 수 있는 답도가 형성되는 패턴 역시 그러하다.



〈사진 30〉 고창고성 대불사 불탑



〈사진 31〉 대불사 불탑 서쪽감실부

교하고성에는 앞의 〈표 2〉에서 보듯이 많은 불교유적지가 존재하는데, 이중 불상이 부조된 불탑은 大佛寺 佛塔, 東北小寺佛塔과 곳곳에 산재해 있는 소형불탑들이다. 대불사 불탑은(사진 32~34) 사방이 흙벽돌로 구축된 담장 안에 건립되어 있다. 높직한 장방형 기단 상면에 방형의 탑신을 두고 다시 그 상면에 불감이 구비된 탑신을 두었다. 탑신에 조성된 불감은 동쪽 면 4개소, 북쪽 면에 6개소, 서쪽 면에 4개소가 남아 있다. 이 중 동쪽면의 왼쪽 상단의 불감에는 불상의 흔적이 남아있다. 북쪽면의 상단 2개소에도 불상이 현존하고 있다. 흙벽돌로 건립한 불탑에 고운 진흙을 발라 벽체를 정선했고, 불상 역시 소조불인 바 표면에는 고운 진

31) 표에서 언급한 대다수의 유적에는 모두 불탑이 현존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간다라 불탑의 양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스바시불사 유적의 서쪽 사원지 불탑은 방형의 기단위에 원구형의 탑신을 올리고 있어 이같은 현상이 확연함을 알 수 있다. 艾斯卡尔 외, 「丝绸之路新疆段佛塔特征研究」, 『學術論文全刊』, 2015.

흙을 도포했으며, 중심에는 木心으로 사용된 나무의 흔적이 관찰된다. 더불어 완전한 양식을 지닌 북쪽면의 불상은 통견법의를 입은 좌상으로 조성되었다. 이 불탑에서 확인되는 상층 탑신부에는 탑신 전면을 돌아가며 감실과 불상이 조성되었다. 불상은 불탑의 각 면에 등을 대고 있어 별도로 조성해 봉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간다라 지역의 불탑에서 확인한 양식이기에 주목된다. 더불어 탑신의 전면에 감실을 조성하고 불상을 봉안한 점 역시 간다라 불탑과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사진 32〉 교하고성 대불사 불탑



〈사진 33〉 교하고성 대불사 불탑 정면 탑신부 감실



〈사진 34〉 대불사 불탑 탑신부 감실 및 불상

동북 소불사에도 소형의 방형 불탑이 현존하고 있다(사진 35). 높직한 방형 기단 위에 탑신을 구축했는데, 상단부가 파괴되어 전모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사면의 탑신에 모두 감실의 흔적이 있어 본래는 사방불이 조각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사방불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탑은 대불사 서쪽 면에서도 확인된다(사진 36). 불탑은 삼면이 벽체로 둘러싸인 내부 중앙에 위치한다. 높직한 방형 기단 상면에 같은 형식의 탑신을 두었는데, 각 면에는 舟形의 감실이 조성되어 있다. 불상의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감실이 조성된 점을 볼 때 본래는 사방불이 조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입상의 존재는 앞서 언급한 아잔 타석굴 19굴, 26굴과의 영향을 고려케 한다. 한편, 불상이 봉안된 불탑은 조형 실물에서 뿐만 아니라 쿠차의 克孜爾石窟 38굴 및 171굴³²⁾(사진 37~38)과 투루판의 吐峪溝石窟 44굴에 그려진 불탑 회화³³⁾(사진 3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2) 新疆美術攝影出版社, 克孜爾, 『中國新疆壁畫全集』, 1995, 102쪽 및 195쪽. 이들 불탑은 克孜爾石窟의 초창기인 3세기 말에서 4세기 중엽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같은 책, 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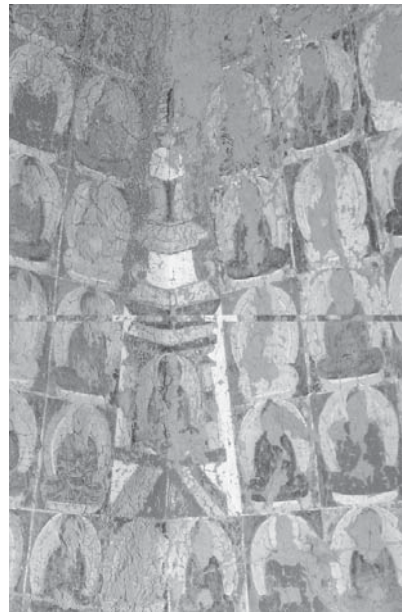
33) 新疆美術攝影出版社, 「吐峪溝」, 『中國新疆壁畫全集』, 1995, 19쪽. 불탑이 그려진 44굴은 고창국 시기인 327년에서 640년에 조성된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같은 책, 3쪽.



〈사진 35〉 교하고성 東北小寺佛塔



〈사진 36〉 교하고성 소탑

〈사진 37〉 쿠차 克孜爾石窟
38굴 불탑〈사진 38〉 쿠차 克孜爾石窟
171굴 불탑〈사진 39〉 투루판 吐峪溝石窟
44굴 불탑

지금까지 실크로드 상에 건립된 불탑 중 불상이 부조되거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불탑만을 선별해 살펴보았다. 이들 불탑은 진흙 벽돌로 조성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간다라 불탑과 같은 양식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감실 내에 봉안된 불상은 탑신과는 별개로 조성되어 간다라에서 시작된 불탑 부조 양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크로드 상에서 확인되는 불탑의 부조상은 불상에 국한되고 있지만, 불탑을 둘러싼 벽체에, 탑신의 전면(大佛)에, 탑신에 감실을 조성하고 봉안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결국 이같은 양상은 모두 간다라의 불탑에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다르마라지카 유적의 J1 스투파에서 확인된 사방불의 양상이 교하고 성에서 확인되는 점은 더욱 주목된다.

2. 운강석굴 불탑의 부조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크로드 상에서 확인되는 불탑의 양상은 간다라 지역의 불탑과 양식적으로 강한 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루판 동쪽의 지역인 돈황 등지에서는 이같은 양식을 볼 수 있는 불탑이 파악되지 않는다. 석굴의 조성과 불상의 봉안은 인도 석굴의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불탑에서는 간다라 및 인도양식의 불탑이 확인되지 않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張液을 중심으로 발흥했던 북량시대의 불탑에 불상이 조각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³⁴⁾ 돈황박물관과 감숙성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시기의 소형 석탑에서 모두 탑신에 새겨진 좌상을 볼 수 있다(사진 40). 하지만, 간다라 양식을 지닌 불탑은 이후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더불어 소위 河西回廊이라 불리는 지역에서는 唐代의 전탑도 확인되지 않는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석굴과 그 안에 봉안된 불상에서는 간다라 양식이 확인되지만, 불탑은 건립되지 않았다. 그런데, 북위시대에 조성된 소형의 석탑과 운강석굴에 같은 양식의 불탑과 불상이 건립되고 있어 시선을 끈다.



〈사진 40〉 돈황박물관 소장 북량석탑

이처럼 운강석굴에서 간다라 양식의 불교문화가 재현됨은 太武帝가 北涼을 멸한 후 그곳의 수천에 달하는 기능장인, 유명한 고승을 平城으로 이동시킨 사민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그중 玄高, 慧崇, 師賢, 曇曜 등 한 무리의 고승들은 불교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平城에 이른 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³⁵⁾ 더불어 “長安城의 工巧 이천 家를 京師로 옮겼다”³⁶⁾는 기록에서 점령지역 기능인의 이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상에서 발흥했던 鄯善, 焉耆, 龜茲, 疏勒, 粟特, 于闐, 渴槃陀, 罽賓 등은 모두 당시 불교가 성행하던 중요한 나라 및 지방이고, 북위와 밀접한 교류를 맺고 있던 곳이다.³⁷⁾

34) 殷光明, 『北涼石塔研究』, 覺風佛教藝術文化基金會, 2000.

35) 解金昌, 「北魏王朝與雲岡石窟」, 『北朝研究』 總第15期, 平城北朝研究會, 1994.

36) 三月,……徙長安城工巧二千家於京師. 『魏書』 「世祖紀」 下

북위는 실크로드 상에서 중요한 거점을 이루었던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고, 북량의 장인들을 이주시킴으로써 그들이 향유했던 간다라 지역의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운강석굴에는 많은 수의 불탑이 석굴의 주탑으로 건립되거나, 석굴 내 벽면에 부조되었다. 불탑이 조성된 석굴과 그 특징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운강석굴 내 불탑 현황³⁸⁾

석굴	불탑 현황	비고
1굴	탑주식 석굴. ³⁹⁾ 중심부: 석탑, 벽면: 정각형 불탑 부조.	
2굴	탑주식 석굴. 중심부: 석탑, 벽면: 전각형·정각형 불탑 부조.	
3굴	석굴 정면 상단: 방형 석탑 2기 건립.	
5굴	석굴 내부 벽면: 고부조의 전각형 불탑 2기 조성.	코끼리가 받치고 있음.
6굴	석굴 내부 벽면: 전각형 5층탑 4기 부조.	
7굴	석굴 내부 벽면: 탑주식 5층탑 6기 부조.	하부: 역사가 받치고 있음.
8굴	석굴 내부 벽면: 탑주식 5층탑 부조.	하부: 역사가 받치고 있음. 상면: 아칸토스 장식에서 솟아오르는 불상부조.
9굴	석굴 입구 전면·측면: 탑주식 5층탑 4기 부조.	상면: 아칸토스 장식에서 솟아오르는 불상부조.
10굴	석굴 입구 전실 벽면: 탑주식 5층탑 7기 부조.	상면: 아칸토스 장식에서 솟아오르는 인물상 부조, 1기는 역사가 받치고 있음.
11굴	석굴 입구 벽면 중 우측 석실 앞: 전각형 5층탑 2기, 좌측 석실 전면: 전각형 7층탑 2기 및 내부 측면: 전각형 3층탑 6기 및 정각형 불탑 2기, 석굴 내 벽면: 10여구의 전각형 3층탑 부조.	
12굴	석굴 입구 세 벽면: 탑주식 3층탑 8구 부조.	상면: 연화문 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불상부조.
13굴	석굴 내부 벽면: 전각형 3층탑 2구, 7층탑 1구 부조.	
14굴	석굴 내부 벽면: 다수의 정각형 불탑·전각형 3층탑 4구 부조.	
17굴	석굴 입구 측면: 전각형 3층탑 1구 부조.	
19굴	석굴 내부 좌측 하단: 전각형 불탑(층수미상) 2기 부조.	
37굴	석굴 내부: 탑주식 방형 5층석탑 1기 건립, 석굴 입구 벽면: 전각형 3층탑 1기 부조.	

37) 宿白, 「平城实力的集聚和云冈模式的形成与发展」, 『雲岡石窟』, 文物出版社, 1994.

38) 불탑의 현황은 필자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것으로, 직접 내부에 들어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수량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힌다.

39) 탑주식이라 함은 기와의 불탑에 분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자가 편의상 붙인 명칭임을 밝힌다. 이 불탑은 방형의 탑신을

운강석굴에는 <표 3>에서 보듯이 다양한 형식의 불탑이 건립되거나, 석굴의 벽면에 부조되어 있다. 전탑을 제외한 나머지 불탑의 양식이 대부분 표현되어 있고, 목조건축 양식을 기반으로 조성되었다.⁴⁰⁾ 그리고 불상과 불탑에서 간다라 양식이 검출되고 있어 주목된다.⁴¹⁾ 필자 역시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운강석굴의 불탑에 구현된 간다라와 인도 불탑의 영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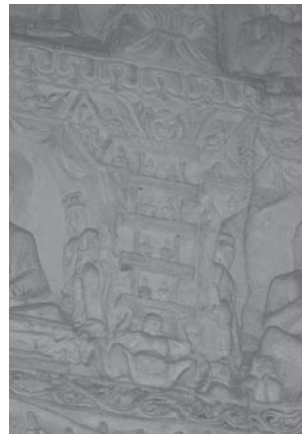
〈사진 41〉 운강석굴 1굴
전각형 불탑



〈사진 42〉 운강석굴 2굴
불탑



〈사진 43〉 운강석굴 6굴
전각형불탑



〈사진 44〉 운강석굴 8굴
탑주식 불탑



〈사진 45〉 운강석굴 13굴
7층전각형 불탑



〈사진 46〉 운강석굴 14굴
정각형 불탑



〈사진 47〉 운강석굴 39굴
전각형 5층불탑

중첩해 올리고 상면에 연화문에서 솟아오르는 불상을 배치한 형식의 불탑이다.

이에 대해 長廣敏雄은 탑B(石造重層塔)으로 명명한 바 있다(長廣敏雄, 『雲岡の中層塔』, 『中國美術論集』, 講談社, 1984). 張華는 이 유형을 층주탑(層柱塔)으로 분류한 바 있다(張華, 『云冈石窟浮雕塔形浅议』, 『文物世界』, 2003).

40) 朴基完, 「论云冈石窟所见楼阁式佛塔的起源及演变」, 『石窟寺研究』, 2011, 159쪽.

41) 이는 주 31의 논문뿐만 아니라 王恒, 「从犍陀罗到雲岡 - 对云冈石窟雕刻艺术表现中有片断的讨论」, 『文物季刊』 1, 1999 및 朴基完, 「论云冈石窟所见楼阁式佛塔的起源及演变」, 『石窟寺研究』, 2011에서도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모든 불탑의 탑신에는 각 면에 불상을 비롯한 부조상이 조식되었는데, 특정한 층에만 부가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조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다라 지역과 아잔타 석굴의 불탑에서 시작된 탑신에 불상을 부조하거나 봉안하는 방식이 실크로드 상의 불탑을 거쳐 이곳 운강석굴에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크로드상의 불탑에서는 간다라의 경우처럼 불상을 별도로 조성해 봉안했지만, 운강에서는 탑신에 직접 장엄한 점이 다르다(사진 41~47).

둘째, 탑신 전면에 부조된 불상은 대부분이 좌상으로 각 면에 1구 또는 2구의 불상이 독립된 불감 안에 봉안되어 있다.

셋째, 기단부의 하면에 역사상이 떠받치고 있는 불탑이 조성되고 있다. 이 유형은 탑주식 불탑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한 구의力士가 양팔을 위로 올려 탑신 전체를 받드는 형상과, 두 구의 역사가 함께 탑을 받드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탑신 전체를 역사가 받치는 사례는 실크로드 상의 불탑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운강석굴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양식이다. 이같은 형식은 간다라 지역의 불탑 하단에 등장했던 아틀라스가 운강석굴의 불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사진 48).



〈사진 48〉 운강석굴 8굴 탑주식 불탑 역사



〈사진 49〉 운강석굴 13굴 7층전각형 불탑 번



〈사진 50〉 마투라박물관 소장 불탑 판넬 번



〈사진 51〉 마투라박물관 소장 불탑 판넬 번

넷째, 상륜부에 조식되는 幡이다. 운강석굴 불탑 상륜부에는 번이 휘날리는 모습이 표현되었는데, 이는 인도 불탑 상륜부에서 확인되는 양식으로, 마투라박물관 소장 석조 판넬에 새겨진 불탑과 산치대탑 토라나에 부조된 불탑에서 그 실례를 볼 수 있다. 이로써 상륜부에 조식되는 번은 인도의 불탑에서 시작되었고,⁴²⁾ 이것이 운강석굴의 불탑 상륜부에서 등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들은 석굴 벽면에 장엄된 전각형 및 정각형 불탑에 부조되었다(사진 49~51).

다섯째, 탑주식 석탑의 상륜부에 등장하는 아칸토스 장식 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불상부조의 존재이다. 张华 선생은 이를 “화생상”으로 분류했는데,⁴³⁾ 이 역시 간다라지역의 문화가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파키스탄 페샤와르박물관과 스위트박물관에 전시된 건축부재의 동일한 조식은 이같은 추론을 입증해준다(사진 52~56).



〈사진 52〉운강석굴 8굴 탑주식 불탑 화생상



〈사진 53〉운강석굴 9굴 탑주식 불탑 화생상



〈사진 54〉페샤와르박물관 소장 화생상 석주1



〈사진 55〉페샤와르박물관 소장 화생상 석주

42) 林玲愛, 「古代 中國 佛教幡의 樣式變遷考」, 『미술사학연구』 189, 1991, 77쪽.

43) 张华, 앞의 논문.



〈사진 56〉 스와트박물관 소장 화생상 석주 『Gandhara Art of Pakistan』에서 전재

3. 唐代 석탑의 장엄

당대에 건립된 석탑은 필자가 실견한 것만 20여기에 이른다. 이들 중에서 건립연대가 분명한 석탑은 산동 성박물관 소장 天寶2년 석탑(743), 북경 운거사 太極 元年 석탑(710), 開元 10년 석탑(722), 開元 15년 석탑(727), 開元 18년 석탑(728), 양태사 석탑(750년), 영천사 석탑(728)으로 이들 석탑에는 모두 장엄조식이 부조되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초층탑신에 집중되어 있는데, 감실을 조성하고 그 좌우에 신장상을 배치했다. 이의 상단에는 귀면문이 양각되었고, 상면에 비천과 용이 중심을 이루는 구도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감실의 내벽 정면에는 삼존불이 조성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사진 57~60).



〈사진 57〉
산동성박물관석탑
초층탑신 부조상



〈사진 58〉
운거사 태극원년석탑
초층탑신 부조상



〈사진 59〉
양태사석탑 초층탑신
장엄조식



〈사진 60〉
영천사석탑 초층탑신
장엄조식

이상에서 운강석굴의 불탑에서 확인되는 간다라의 문화의 영향과 당대에 건립된 석탑의 장엄조식에 대해 서술했다. 여러 측면에서 이를 논할 수 있지만,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불탑의 전면을 가득 채운 장엄조식이다. 운강석굴의 불탑과 소형 석탑들에서도 같은 양상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북위 불탑의 한 특성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당대에 건립된 석탑의 장엄조식은 주로 초층탑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절대 다수의 석탑에서 기단을 생략하거나 소략하게 조성했던 이 시대 석탑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한국 불탑에 부조된 장엄조식

간다라 불탑의 탑신에 불상을 부조함으로써 시작된 불탑 장엄은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 운강석굴의 불탑과 당대에 건립된 석탑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장엄조식은 한편으로는, 간다라와 인도불탑의 전통이 그대로 계승된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화되어 변용된 것도 확인되고 있다. 운강석굴을 위시한 북위시대에 건립된 석탑의 전면에 걸쳐 불·보살상이 부조되지만, 당대에 건립된 석탑에서 초층탑신에 장엄이 집중되는 현상이 그 특징이다. 더불어 인도와 간다라의 장엄이 불보살에 국한되었다면, 중국에서는 이들과 함께 당대에 이르러 용과 신장 등이 결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한국 특히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불탑에서는 이보다 한층 더 진전된, 구체적으로는 10가지 유형의 장엄조식이 배풀어졌다. 부조상 유형의 다양화와 더불어 조각 범위 역시 기단부와 초층탑신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된 양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 신라 석탑의 양식이 중국의 그것과는 다르듯이 장엄조식 역시 신라만의 독특한 체계를 완성했음이 파악된다.

이같은 양상을 볼 때, 불상의 기원이나 불탑의 기원을 간다라와 인도에서 구하는 방법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조상의 연원 역시 이와 같은 전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일찍이 문명대 선생에 의해 피력된 바 있다. 선생은 경주박물관 소장 사암제 불상에 주목해 “이의 양식이 대체적으로 굽타-마츄라 불상양식과 대비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운강양식과도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⁴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라 석불의 조성에 인도불상과 운강석불의 양식이 영향을 미치고, 신라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는 입장인데, 선생은 그 근거로 ① 인도와의 직접적인 교류, ② 인도-중앙아시아를 통하여 北方으로 전파된 것, ③ 중국을 매개로 한 것의 세 가지 루트를 추정하며 이중에서 중국을 매개로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⁴⁵⁾ 이러한 관점은 이후 임영애 선생에 의해 감산사석조아미타여래조상이나 경주박물관 소장 사암제 불상과 같은 불상은 통일신라시대 조각을 서역문화의 직접 전래보다는 서역화 된 당 문화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것이라는 견해로 제시된 바 있다.⁴⁶⁾ 더불어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천불천탑의 연구에서 인도에서 시작된 천불상의 조성이 통일신라시대에 성행하고 있음을 고증한 논고가 있지만, 이를 상호 연결하는 문제에

44) 文明大, 「慶州博物館 砂巖製 如來立像考」, 『美術史學研究』 123・124, 1974, 43쪽.

45) 문명대, 앞의 논문.

46) 임영애, 「통일신라 불교조각에 나타난 서역양식 시론」, 『미술사학』 8, 1996, 226쪽.

대해서는 거론하지 못한 한계를 노정한다.⁴⁷⁾ 이러한 경향은 비록 중국화 된 서역양식의 전래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미술사의 지평을 넓히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미술사 연구에서 상호교류라는 측면이 반드시 양식 그 자체에만 국한되어야 하는가하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불상이든 다른 조형이든 간에 실물이 들어오거나 현장을 그린 화폭이나 도면이 들어오는 직접적인 전래만이 문화의 교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정 조형이나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나 모티프의 전래 역시 문화 교류의 한 양상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라 팔각원당형 석조부도의 기원을 논했던 김원룡 선생의 견해는 실로 탁견이라 여겨진다.

“8세기쯤 해서 中國式舍利塔의 아이디어가 들어왔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신라의 工匠들이 팔각탑신 밑에 在來式 佛臺座形式을 변화시켜 첨가해서 하나의 韓國式舍利塔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된다. 또 중국식을 따른 山雲文式에 있어서도 龍을 가하고 또 팔각형이라는 기본형을 망각하지 않은 한편 雲龍紋 자체를 自體內에서 변화시켜 마침내 순한국식형식으로 끌어갔다고 할 수 있다”.⁴⁸⁾

선생에 따르면 아이디어의 전래만으로도 충분히 독자적인 형태의 양식과 조형이 이룩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먼저 울산 태화사지석조부도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이 부도는 전체적인 양식에서 일견 간다라의 전형적인 불탑과 인도의 산치탑을 연상케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복발형의 탑신을 一石으로 조성했으며, 탑신에 개설된 감실과 십이지상의 부조는 간다라와 인도의 탑과는 완전히 다른 일면을 보이는 요소임이 파악된다. ‘복발형 탑신이라는 아이디어 또는 모티프’의 전래가 통일신라의 장인들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양식으로 탄생된 것이다.⁴⁹⁾ 또한 분황사 모전석탑 역시 인도불탑의 영향 하에 건립된 것으로,⁵⁰⁾ 형태면에서는 복발형이 아닌 방형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장엄조식 즉, 부조상은 앞서 살펴본 간다라와 인도불탑에서 시작되어 실크로드를 거쳐 운강석굴에 정착되고, 다시 唐代석탑에 전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같은 양상이 통일신라시대로 전파되었다. 이때 ‘불탑의 표면에 장엄이 가해질 수 있다는 모티브’의 전래는 통일신라시대 조탑공들에게 새로운 영감의 동력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불탑 특히 석탑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한 구조물이라는 순수 신앙적인 측면을 넘어 호국적 이미지가 포함되는 등 건립의 목적에서 다양성을 지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통일 직후에 성행했던 신인종과 이를 뒷받침했던 금광명경이나 관불삼매해경의 유포와 신앙⁵¹⁾은 불탑의 표면에 사방불 혹은 사천왕을 비롯한 다양한 제상이 부조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마

47) 이진호, 「통일신라시대 천탑 천불상연구」, 『先史와 古代』 44, 2015, 39~72쪽.

48) 김원룡, 「唐朝의 舍利塔」, 『考古美術』 4: 4, 1963.

49) 인도의 불탑양식인 복발형의 개념이 당시 무역향이던 開雲浦를 통해 수입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鄭永鎬, 『新羅石造浮屠研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74, 146~147쪽.

50) 이희봉, 「신라 분황사 탑의 ‘模塼石塔 說’에 대한 문제 제기과 고찰」, 『건축역사연구』 20, 2011; 박경식, 「분황사 모전석탑의 양식 기원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 41, 2013.

51) 신인종은 방위를 중시하는 종파로, 이 경전의 유입과 보급으로 인해 신라시대에 사방불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당 전쟁기에 건립된 사천왕사에 五方神像의 설치를 필두로 남산 탑곡의 사방불, 남산 칠불암의 사방불, 굴불사지 사방불 등이

련했다. 이에 중국을 거쳐 전승된 불탑에 직접적인 장엄이 가해질 수 있다는 모티프의 전래는 통일신라시대의 불탑에서 다양한 諸像이 부조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신라시대에 불탑에서 이룩된 장엄조식의 체계는 간다라와 인도, 실크로드와 중국의 그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각국에 부조된 장엄조식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로 집약된다.

〈표 5〉 석탑 부조상의 비교

지역	부조상의 유형	위치	방법
간다라	불상, 아틀라스	탑신부	별도로 조성해 봉안
인도	불상, 꽃줄	탑신부	탑신에 직접 조각
실크로드	불상	탑신부	별도로 조성해 봉안
운강석굴	불상 및 인물상	탑신 전체	탑신에 직접 조각
당대석탑	용, 비천, 귀면, 신장,	초층탑신	탑신에 직접 조각
통일신라	불상, 보살, 사천왕, 인왕, 문비, 팔부신중, 비천상, 사자, 십이지	기단부 및 초층탑신	탑신에 직접 조각

위의 표를 보면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부조된 장엄조식은 간다라와 중국의 그것과는 명확한 차별성이 있다. 간다라와 중국에서는 불상이 중심을 이룬 반면, 통일신라에 이르러 나타나는 변화상은 첫째, 장엄된 부조상의 유형이 다양화되었다. 이 다양성은 바로 통일신라의 문화 역량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간다라로부터 시작된 불탑의 장엄이 운강석굴을 거쳐 통일신라 석탑에 이르러 만개하는 양상이 파악되는데, 이는 단순히 불상을 봉안하거나 부조하는 장엄조식이라는 개념을 통일신라의 장인들이 변형·발전시켰음을 의미한다(사진 61~64).⁵²⁾ 다시말해 통일신라시대 불교문화의 자생력이 돋보이는 장면이라 하겠다. 간다라에서 시작된 불탑의 장엄조식은 운강석굴의 부조탑과 唐代에 건립된 석탑에서 그 잔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운강석굴에 부조된 다양한 불탑과 실제 북조시대에 건립된 석탑에서는 목조건축의 요소와 불상을 장엄하는데 그치고 있어 간다라 불탑에서와 동일한 양상이다. 당대의 석탑에서도 운강석굴 부조탑의 영향이 보이기는 하지만, 통일신라시대의 불탑에서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像들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전과 결합시키

신인종의 영향으로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9세기 석탑에 등장하는 사천왕상과 팔부신중 다양한 신장 역시 신인종의 방위신앙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방위신앙이 중심을 이루었던 김유신 가문의 몰락과 함께 화엄종과 선종으로 대체되고 있다. 신인종에서 신봉된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금광명경과 관불삼매해경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경전에는 모두 사방불에 대한 존명이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부조되는 사방불과 사천왕등의 방위와 연관되는 장엄조식은 이 경전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문명대, 『新羅四方佛의 起源과 神印寺(南山塔谷 磨崖佛)의 四方佛 - 新羅四方佛研究 1』, 『한국사연구』 18, 1977; 조원영, 「신라 사방불의 형식과 조성 배경」, 『역사와 세계』 30, 2006; 金煥大, 「한국석탑의 장엄 조식」, 『신라사학보』 6, 2006.

52) 임영애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주변문화로 폐쇄된 지역 안에서의 독자성이란 그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적어도 일정한 자생적 지역요소를 갖춘 상태라면 항상 선진적 양식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유입함으로써 도리어 선진 양식과는 전혀 다른 요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임영애, 1996, 앞의 논문.



〈사진 61〉 진전사지삼층석탑 장엄조식



〈사진 62〉 원원사지 동삼층석탑 장엄조식



〈사진 63〉 원원사지 서삼층석탑 장엄조식



〈사진 64〉 화엄사 서오층석탑 장엄조식

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라의 석탑공 내지 조각가들은 불탑을 건립함에 있어 실제 경전에 기록된 바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1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부조상을 석탑 표면에 장엄하는 창의성을 발휘했다. 결국 중국의 불탑과는 달리 신라석탑에는 다양한 구조적 특징⁵³⁾이 나

53) 박경식, 2015, 「미륵사지석탑의 기술력이 신라석탑에 미친 영향」, 『新羅文化』 45, 2015, 67~102쪽.

타나는 것처럼, 장엄조식에 있어서도 신라석탑의 독자성을 확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양상은 중국에서 목탑이 전탑으로 재료의 변환을 이룩할 때, 신라의 장인들은 석재를 사용해 건립한 석탑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완성시킨 역사적 사실에 비견된다.

둘째, 부조상이 조식된 위치가 기단부와 초층 탑신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각국이 건립한 불탑의 조성방법에 기인한다. 앞서 살펴본 간다라와 인도의 불탑은 석재를 사용해 건립했지만, 판석형이 아니라 외면만을 가공한 자연석을 활용해 건립했다. 더구나 석재를 방형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라 semi-ashlar기법을 적용해 건립한 탓에 석탑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표면에는 강회를 바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로 인해 간다라의 불탑에서는 방형으로 조성된 경우 탑신에 장엄이 가해진다. 이같은 방법은 실크로드 상의 불탑에서도 일치하고 있지만, 운강석굴과 북조시대의 불탑은 석재로 조성되어 석탑 전면에 걸쳐 장엄조식이 등장하게 된다. 더불어 석탑 전체에 장엄이 배풀어질 수 있는 요인은 규모가 비교적 소형이라는 데 있다. 때문에 석탑의 규모에 걸맞게 장엄 역시 소형으로 부조되었고, 다양성이라는 문제에 있어 소략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신라의 석탑 나아가 전탑을 비롯한 다양한 불탑은 규모에 있어 건축물로서의 위용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강암으로 조성되었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신라의 조각공들은 장엄조식의 부조에 있어 탕주로 분할된 면과 초층탑신의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장엄을 창출하여⁵⁴⁾ 당시 유행했던 경전들과 조화를 이루며 신라석탑만의 독특한 장엄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간다라 불탑의 장엄은 석탑표면에 직접 부조한 것이 아니라 스투코를 이용해 조성한 불상을 부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흙벽돌을 이용해 건립한 실크로드상의 불탑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운강석굴의 불탑은 석재로 조성된 탓에 석탑 표면에 직접 부조하고 있어 차별성을 보이는데, 이는 신라 석탑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같은 현상은 건립 재료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다라와 실크로드상의 불탑은 가공된 소형의 석재나 흙벽돌을 사용하여 건립한 탓에 그 표면에 직접적인 장엄 부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석재를 사용하는 경우나 석굴의 경우는 직접적인 조각이 가능하다. 이는 아진타석굴과 운강석굴 및 당대의 불탑이 모두 석재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은 기단과 초층탑신에 밀집되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단이 상·하 2층으로 조성되었고, 화강암을 사용해 건립했기에 장엄의 위치 선정에 있어 차별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간다라와 인도 그리고 중국의 불탑에 부조된 장엄조식은 불상의 존명이나 배치의 규칙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반해 통일신라시대의 불탑은 가장 많은 예를 보이는 사방불과 사천왕을 위시해 팔부신중에 이르기까지 경전에 입각한 상을 조성했기에 대부분 존명이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장엄의 배치에 있어서도 하층기단으로부터 초층탑신에 부조상들의 위계질서가 명확히 지켜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통일신라시대의 불탑에 부조된 다양한 장엄은 그 기원을 간다라와 인도의 불탑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중국을 경유해 표면에 장엄이 부조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 또는 모티프를 수용한 신라의 장인들은 그들

54) 신라석탑에 부조된 장엄조식은 탕주로 분할된 면석과도 일치하는 면면을 보인다. 즉, 탕주가 2주로 분할되는 경우 모두 12면이 생성되는데, 이에 12지를, 탕주가 일주로 분할되는 경우 8면이 형성되는 바, 이에 8부신중이 부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층탑신의 경우에는 우주만 모각되기에 네 면이 형성되고 이에 사천왕 또는 사방불이 부조되고 있다.

만의 독특한 장엄체계를 일궈냈다. 결국, 통일신라시대의 불탑에 구현된 기술적인 특징과 더불어 예술과 신앙체계는 불탑의 장엄조식이 시작된 간다라와 인도, 그리고 이를 직접 계승했던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불탑에 부조된 장엄조식은 간다라의 불탑에서 시작되었다. 이 지역의 불탑은 가공하지 않은 석재로 구축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공간에는 소형의 석재로 마감하는 semi-ashlar기법으로 탑신을 조성했다. 때문에 탑신 전체에 스투코 소재의 회를 덧칠해 회벽을 구성했다. 이같은 구조를 볼 때 간다라의 조탑공들이 탑에 대한 공경심으로 무엇인가 공양을 하고자 했다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가장 적합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활동지역에서 탄생한 불상을 별도로 조성하여 봉안했다. 단순히 불상을 조성해 봉안한 것이 아니라 불상의 등과 탑신의 벽면을 접합시켰는데, 이것이 불탑 장엄의 시작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아잔타 석굴 19굴 및 26굴의 불탑은 석재로 조성한 탓에 탑신 전면에 불상을 직접 조각했다. 원형의 탑신을 돌아가며 불·보살상을 직접 조각하거나, 전체에 다양한 상을 부조함으로써 불탑장엄조식 양식의 완성을 이루고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간다라의 불탑들이 1~4세기에 건립되고, 아잔타 석굴의 19굴과 26굴이 5세기에 조성되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이처럼 간다라와 인도에서 시작된 불탑의 장엄은 중국으로 전래된다.

실크로드를 구성하는 오아시스로와 천산남로에 존재한 불탑에서도 이러한 간다라와 인도불탑의 직접적인 영향이 확인된다. 라와크사원지에서와 같이 불탑을 둘러싼 담장에 불·보살상이 부조되거나, 카스와 모르유적과 투루판의 교창 및 교하고성의 불탑에서와 같이 전면에 거대한 입상을 조성하거나, 탑신에 불감을 조성하고 불상을 봉안하는 양식이 계승되고 있다. 이처럼 실크로드 상에서 확인되는 불탑의 장엄은 운강석굴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불탑이 석재로 조성되거나 석굴 벽면에 부조된 탓에 표면에 직접 조각이 가해지는 변용이 나타날 뿐, 불상을 모티프로 하는 부조상의 유형에는 동질성이 간취된다. 이같은 양상은 唐代에 건립된 석탑에서 좀 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지만 통일신라불탑에서와 같이 체계적이면서도 신앙과 결합된 데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간다라에서 시작된 불탑의 장엄은 중국의 불탑을 거쳐 마침내 만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비록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조형물에서 간다라의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논할 수 있는 유물이 존재하지는 않지만,⁵⁵⁾ 불탑에 표면에 장엄이 가해진다는 간다라 및 인도 불교도들의 아이디어는 실크로드와 중국을 통해 통일신라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간다라와 실크로드 그리고 운강석굴을 위시한 북조시대에 건립된 불탑은 5세기를 하한으로 하며, 당대 석탑 건립 시기는 8세기이다. 하지만 신라석탑의 부조상은 634년에 분황사 모전석탑에 인왕상이 최초로 등장한 이래 고선사지 삼층석탑의 초층탑신에 문비형이 조각되

55) 임영애, 1996, 위의 논문.

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8세기에 건립된 장항리사지오층석탑의 초층탑신에 나타나고 이어 9세기에 건립된 석탑에서는 10종이 부조될만큼 활발히 채용되었다. 이처럼 통일신라시대의 장인들은 간다라에서 태동한 아이디어, 즉 ‘불탑에 다양한 像을 부조함으로써 이를 더욱 숭앙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중국을 통해 수용하여 그들만의 예술적인 역량으로 발전시켰다. 결론적으로, 간다라에서 시작된 불탑의 장엄은 통일신라시대에 건립한 불탑에 이르러 사상과 양식적인 면에서 완성을 이룩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金理那,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89.
 박경식, 『통일신라 석조미술 연구』, 학연문화사, 2002.
 ———, 『석조미술의 꽃: 석가탑과 다보탑』, 한길아트, 2003.
 임영애, 『서역불교조각사』, 일지사, 1996.
 정영호, 『新羅石造浮屠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황미연, 「통일신라시대 주악상에 관한 고찰」, 『낭만음악』, 낭만음악사, 1996.
 殷光明, 『北凉石塔研究』, 覺風佛教藝術文化基金會, 2000.
 張馭寰, 『中國佛塔史』, 科學出版社, 2006.
 SUSAN L. HUNTINGTON, *THE ART OF ANCIENT INDIA*, WEATHERHILL: New York · Tokyo, 1993.

2. 논문

- 姜三慧, 「나말여초 僧塔 塔身 神將像 연구」, 『미술사학연구』 252, 2006.
 고정은, 「간다라와 마투라의 불전부조도 교류관계 연구」, 『강좌미술사』 25, 2005.
 金籽優, 「미술사의 작가와 유파: 조각: 탁실라 달라미지카 사원지 간다라 스투코 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 2006.
 金煥大, 「한국석탑의 장엄 조식」, 『신라사학보』 6, 2006.
 김영애, 「달마라지카 사원구조와 불상조각」, 『강좌미술사』 23, 2004.
 김원룡, 「唐朝의 舍利塔」, 『考古美術』 4: 4, 1963.
 김정수, 「신라시대 목탑의 장엄조식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4: 1, 2005.
 문명대, 「新羅四方佛의 起源과 神印寺(南山塔谷 磨崖佛)의 四方佛」, 『한국사연구』 18, 1977.
 ———, 「韓國四天王像의 研究: 韓國塔浮彫像의 研究(2)」, 『佛教美術』 5, 東國大博物館, 1978.
 ———, 「韓國塔浮彫(彫刻)像의 研究(1): 新羅仁王像(金剛力士像)考」, 『佛教美術』 4, 1979.

- _____, 「간다라(Gandharh) 불상론(佛像論)」, 『강좌미술사』 21, 2003.
- _____, 「Jaulian II 寺院址 發掘 報告」, 『강좌미술사』 25, 2005.
- 문무왕, 「신라 불교문화 원형 연구: 실크로드와 경주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43, 2014.
- 박경식, 「분황사 모전석탑의 양식 기원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 41, 2013.
- 朴基完, 「论云冈石窟所见楼阁式佛塔的起源及演变」, 『石窟寺研究』, 2011.
- 박도화, 「다트이바히 사원지 구조와 불상조각」, 『강좌미술사』 23, 2004.
- 손신영, 「간다라 방형기단 불탑의 一考察」, 『강좌미술사』 25, 2005.
- 신용철, 「신라석탑 문비조각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37, 2014.
- _____, 「統一新羅 八部衆像의 考察」,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4, 2003.
- 심영신, 「통일신라시대 四天王像 연구」, 『미술사학연구』 216, 1997.
- 안병찬, 「간다라 건축물의 회벽 마감기법에 관한 試考」, 『강좌미술사』 24, 2005.
- 양은경, 「Gandhara 불상과 중국 불상의 관계 비교: 五胡十六國時代 불상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25, 2005.
- 임영애, 「古代 中國 佛教幡의 樣式變遷考」, 『미술사학연구』 189, 1991.
- _____, 「통일신라 불교조각에 나타난 서역양식 시론」, 『미술사학』 8, 1996.
- _____, 「무장형 사천왕상의 연원 再考: 간다라 및 서역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11, 1998.
- _____, 「간다라(Gandharh)의 金剛力士」, 『中央 아시아 研究』 9, 2004.
- _____, 「인도와 간다라의 執金剛神」, 『강좌미술사』 29, 2007.
- _____, 「신라 불탑 탑신(塔身) 부조상의 추이: 금강역사상에서 사천왕상으로」, 『先史와 古代』 35, 2011.
- 유근자, 「간다라 梵天勤請 佛傳 圖像의 地域別 比較研究」, 『강좌미술사』 25, 2005.
- 李柱亨, 「간다라 불상의 몇 가지 양식적 유형」, 『미술사학연구』 219, 1998.
- 이진호, 「통일신라시대 천탑 천불상연구」, 『先史와 古代』 44, 2015.
- 이해주, 「북제 향당산 석굴 불상대좌 연구(I)」, 『東洋學第』 60, 2015.
- _____, 「국립중앙박물관소장 금동반가사유상 대좌 人像柱 도상의 원류와 상징」, 『신라문화』 47, 2016.
- 이희봉, 「신라 분황사탑의 ‘模塼石塔 說’에 대한 문제제기와 고찰」, 『건축역사연구』 20, 2011.
- 張忠植, 「統一新羅石塔 浮彫像의 研究」, 『考古美術』 154・155合輯, 1982.
- 전정중, 「新羅石塔八部衆像의 樣式과 變遷」, 『문화사학』 16, 2001.
- 鄭永鎬, 「韓國石塔의 特殊樣式考察」上, 『論文集』 3, 1969.
- _____, 「韓國石塔의 特殊樣式考察」下, 『論文集』 4, 1970.
- 조원영, 「新羅下代 四天王浮彫像의 組成과 그 배경」, 『역사와 세계』 19, 1995.
- _____, 「신라 하대 팔부신중상 연구」, 『역사와 경계』 39, 2000.
- _____, 「신라 사방불의 형식과 조성 배경」, 『역사와 세계』 30, 2006.
- 秦弘燮, 「塔婆」, 『國寶』 6, 藝耕産業社, 1983.

- 천득염·김준오, 「인도 쿠산시대의 스투파 형식」, 『건축역사연구』 21: 6, 2012.
- 宿白, 「平城实力的集聚和云冈模式的形成与发展」, 『雲岡石窟』, 文物出版社, 1994.
- 王恒, 「从犍陀罗到雲岡－对云冈石窟雕刻艺术表现中有关片断的讨论」, 『文物季刊』 第1期, 1991.
- 長廣敏雄, 「雲岡の中層塔」, 『中國美術論集』, 講談社, 1984.
- 张华, 「云冈石窟浮雕塔形浅议」, 『文物世界』, 2003.
- 陈晓露, 「西域回字形佛寺源流考」, 『考古』 11期, 2010.
- 解金昌, 「北魏王朝與雲岡石窟」, 『北朝研究』 總第15期, 平城北朝研究會, 1994.
- 艾斯卡尔 외, 「丝绸之路新疆段佛塔特征研究」, 『學術論文全专刊』, 2015.

3. 도록

- 新疆美術摄影出版社, 「克孜爾」 1, 『中國新疆壁畫全集』, 1995.
- 新疆美術摄影出版社, 「吐峪溝」, 『中國新疆壁畫全集』, 1995.
- 『The Route of Buddhist Art』, 나라국립박물관, 1988.
- 『Gandhara Art of Pakistn』, NHK, 1984.

- * 이 논문은 2017년 2월 24일에 투고되어,
2017년 3월 13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7년 3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4월 3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The Origin of Korean Buddhist Pagoda Reliefs

Park, Kyeongshik*

Korean pagodas, the various sculpted ornaments on the stereobates and the lower story stone bodies in particular, have been an appealing subject from early on. However, studies on pagoda ornaments were conducted mostly through comparisons with Chinese stupas, and the most basic question on the origins of the sculpted ornaments found on Korean pagodas has not been answered. Buddhist pagodas are originated from India, and the decorations are also derived from Gandhara and India. All the stone bodies of the stupas in Dharmarajika, Mohra Moradu and Jaulian ruins in Gandhara have images of Buddha sculpted on them, and the stone bodies of the stupas in Caves 19 and 26 in Ajanta Caves in India are covered with sculpted images of Buddha, Bodhisattvas and celestial nymphs. Such decorative sculptures prove that the origin of the sculpted ornaments can be traced back to Gandhara and India. Furthermore, the sculpted ornaments for stupas, those which were originated from Gandhara and India, or their vestiges are found in the stupas in Rawak ruins in Khotan, the Mor stupa in Kashgar and the stupas in the Gaochang and Jiaohe ruins in Turfan. Thus, the sculpted ornaments for stupas were spread through the Silk Road, and are found even on stupas in Yungang Grottoes in China. The stupas in Yungang Grottoes have sculpted images of Buddha in all stories to prove the proliferation of the stupa ornaments. Similar ornaments are found also in small stupas built during the Northern Wei period. The sculpted ornaments transmitted to Chinese stupas in Northern Wei period had become more diversified as they were introduced to Korean stupas during the period of Unified Silla. During the period of Unified Silla, the types of the sculpted ornaments were expanded from one – images of Buddha, to ten while the placement of the sculpted ornaments were concentrated on the stereobates and the lower story stone bodies of stupas. Thus, the sculpted ornaments for stupas appeared first in Gandhara and India, the cradles of Buddhist art, were transmitted to Yungang Grottoes in China, and then, to ancient Korea to enjoy its full bloom in Unified Silla – the ‘state of stone pagodas.’

[Key Words] Gandhara, Dharmarajika stupa, Mohra Moradu stupa, Jaulian stupa, Ajanta Caves, the Silk Road, Rawak ruins, the Mor stupa, Gaochang and Jiaohe ruins, Yungang Grottoes.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